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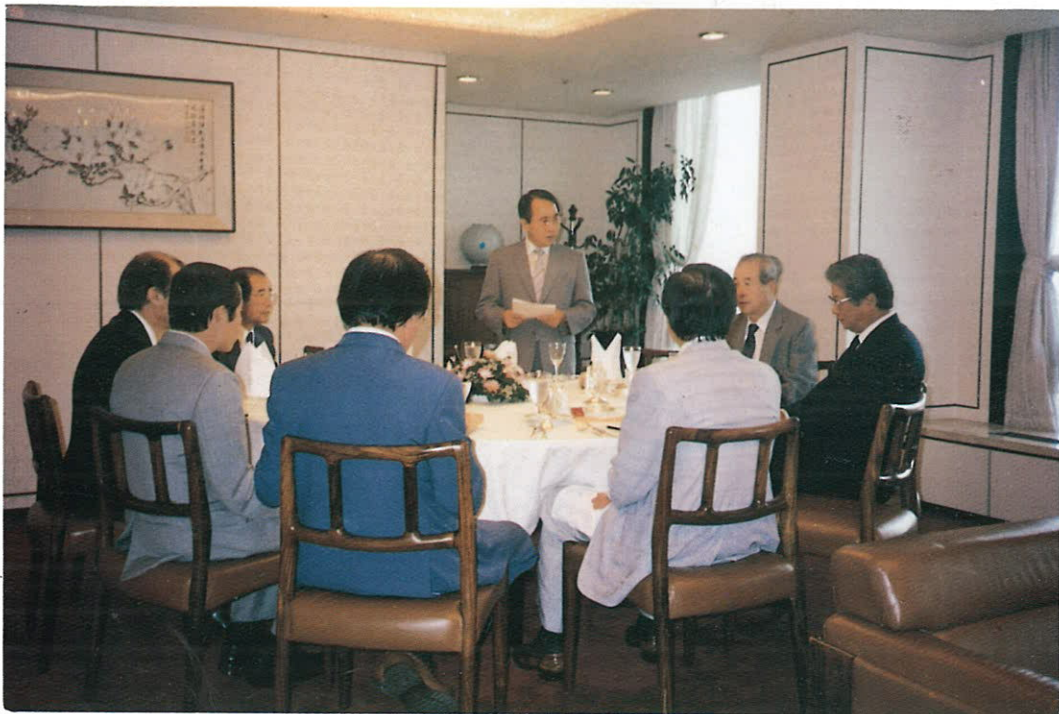
보험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언론계가 중심이 된 긴급이사회를 열고 범국민적인 모금운동과 구호활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



인 사 말 씀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사후조치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힘만으로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네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쥬디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큰 재산피해와 10만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으며

뜨겁고도 아름다운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 전통은 오늘에도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61년 이래 재해민 구호를 위하여 국내외 각계 각층으로부터 기탁된 의연금 1천억원과 각종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의연품 1천2백만점(환가액 346억원)을 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지구에 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데 십시일반이 되어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의회에서 모집된 의연금품의 사용내역을 간추려 알려드립니다.

1990년 5월 21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유건호